



미 증시, 매크로 불안 완화, 기업 호실적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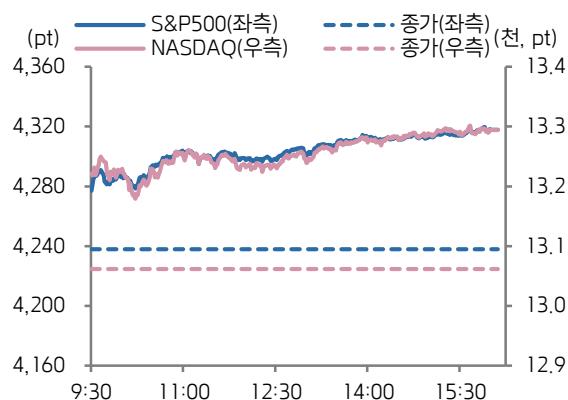
2일(목) 미국 증시는 지난 11월 FOMC에서의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지속된 10년물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스타벅스(+9.5%) 등 일부 기업 호실적에 힘입어 전업종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며 상승(다우+1.7%, S&P500 +1.9%, 나스닥 +1.8%).

업종별로는 에너지(+3.1%), 부동산(+3.1%), 금융(+2.4%), 경기소비재(+2.4%) 등 전업종이 강세. 스타벅스(+9.5%)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 웰컴(+5.8%)은 스마트폰 핸드셋, 차량용 반도체 등 주력 사업부문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고객사들이 재고 소진에 따른 신규 주문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급등. 반면, 애플(+2.1%)은 아이폰 프로 등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미주 지역을 제외한 중국, 유럽 등 여타 지역에의 판매가 부진했다는 점으로 인해 시간외에서 3% 내외 주가 하락 중.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7만건으로 전주(21.2만건) 및 컨센(21.0만건)을 소폭 하회. 3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4.7%(QoQ)로 전분기(3.6%) 및 컨센(4.1%)을 상회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 반면 단위 노동비용은 -0.8%(QoQ)로 전분기(+3.2%) 및 컨센(+0.7%)를 큰 폭 하회하면서 임금 인플레 압력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 한편, 9월 공장재수주는 +2.8%(MoM)으로 전월(+1.0%) 및 컨센(+2.4%)를 모두 상회하면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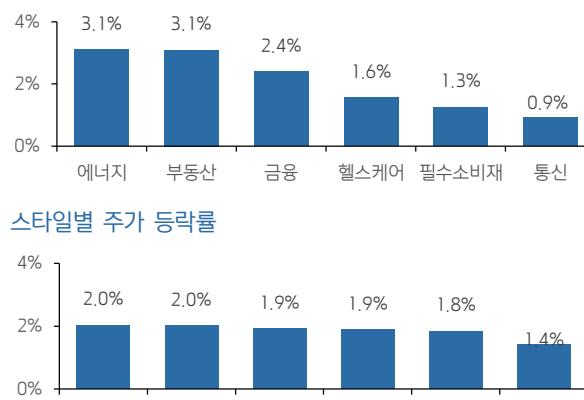
영란은행(BOE)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로 동결(찬성 6명 vs 반대 3명). BOE 측은 중기적으로 지속해서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은 충분히 제약적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의 증거가 생긴다면 추가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둠. 베일리 BOE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성이 더 필요하다면서 금리인하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343.12	+1.81%	USD/KRW	1,342.84	-1.06%
코스피 200	315.16	+1.76%	달러 지수	106.13	-0.7%
코스닥	772.84	+4.55%	EUR/USD	1.06	-0.02%
코스닥 150	1,209.47	+5.54%	USD/CNH	7.33	+0.01%
S&P500	4,317.78	+1.89%	USD/JPY	150.45	+0%
NASDAQ	13,294.19	+1.78%	채권시장		
다우	33,839.08	+1.7%	국고채 3년	3.980	-8.5bp
VIX	15.66	-7.17%	국고채 10년	4.160	-12.5bp
러셀 2000	1,714.21	+2.67%	미국 국채 2년	4.989	+4.6bp
필라. 반도체	3,368.54	+2.36%	미국 국채 10년	4.659	-7.5bp
다우 운송	14,285.46	+1.89%	미국 국채 30년	4.801	-12.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69.62	+1.9%	WTI	82.46	+2.51%
MSCI 전세계 지수	655.05	+1.93%	브렌트유	86.99	+2.79%
MSCI DM 지수	2,852.55	+1.97%	금	1993.5	+0.3%
MSCI EM 지수	930.62	+1.6%	은	22.85	+0.25%
MSCI 한국 ETF	58.05	+3.2%	구리	367.25	+0.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7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3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2.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11 월 FOMC, 국채 수급 불확실성,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10 년물 금리 추가 하락
2.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 재개 여부
3. 애플 아이패드 매출 시장예상치 상회로 인한 국내 애플밸류체인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이틀간의 증시 반등에는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이후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앞당겨진 영향이 컸음. 그 외 미국 재무부 국채발행계획 공개 이후 장기채 수급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ADP 민간고용,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 하회, 애틀랜타 연은 4 분기 GDP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 재가속 우려가 완화된 점 역시 시장금리를 끌어내렸던 요인.

미국 재무부 10~12 월 만기별 자금조달 계획에서 2, 3, 5 년물 등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량이 증가하고, 10 년물 이상의 장기물 채권 발행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 지난 3 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1.7 조달러 차입 계획 발표 이후 불거졌던 재무 건전성 및 수급 불안 완화.

금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하락, 고용 둔화를 뒷받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7 만건(예상 21.0 만건, 전주 21.2 만건)으로 상승. 3 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 QOQ 4.7%(예상 4.3%, 2 분기 5.7%), 단위당 노동 비용 QOQ -0.8%(예상 0.7%, 2 분기 3.2%)으로 투입된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산량 1 단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했음을 시사. ADP 민간고용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전월 8.8%에서 8.4%로 추가 둔화.

한국 수출과 동행성을 보이는 ISM 제조업지수는 부진. 신규 주문 건수 49.2→45.5, 고용 51.2→46.8 모두 감소했지만 재고 45.8→43.3 로 함께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 이번 10 월 한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과 함께 봤을 때 오히려 지표 부진이 경기재가속 우려를 덜어주는 호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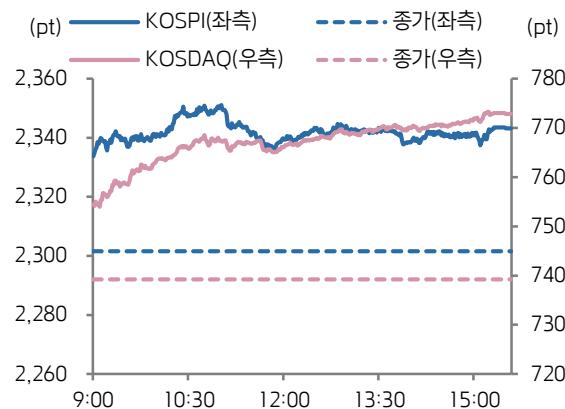
ECB, 연준에 이어 BOE 역시 금리 동결 단행했으며 선진국들의 정책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지표로 보여지는 물가와 고용의 완만한 둔화 추세 훼손되지 않았고 국채 수급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금리 상방 리스크 완화. 3 분기 약세 이후 4 분기 반등이라는 기준 전망 유지하며, 이번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예상 18 만명, 전월 33.6 만명), ISM 서비스업 지수(예상 53.0, 전월 53.6) 추가 둔화 확인, 9 월에 서프라이즈 기록한 소매판매 포함 실물 지표 둔화 및 긴축 효과 확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2 일(목) 국내증시는 완화적이었던 파월의장 발언, AMD 실적 서프라이즈에 투자 심리 크게 개선되며 반도체, 2 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 (KOSPI +1.81%, KOSDAQ +4.55%)

금일 역시 미 국채 10 년물 금리 4.6%대 도달, 원/달러 환율 급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예상. 애플(2.07%) 4 분기 전망 YOY 플랫하게 제시하며 시간외 -3.5% 기록중이지만, 아이패드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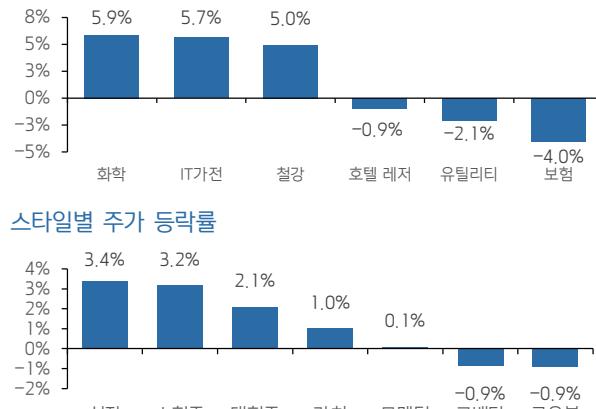
금리 고점 통과 기대감 형성되며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그동안 강세 보였던 통신, 은행, 보험, 소비재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는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남. 11~12 월 계절성, 솟커버링 매수세 등 긴축 종료에 따른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중동리스크, 11 월 17 일 임시 예산안 기한, 11 월 21 일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 아직 남아있으므로 성장주의 추세전환 및 V 자 반등보다는 9 월 수준까지 주가 복원 이루어질 것.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해외 실적 민감도 낮아지며 개별 호재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